

5월 첫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인니 노동단체들, 코로나로 '노동절 시위' 집에서 온라인으로 (p. 1-3)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1046100104>)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코로나 영향 '베이비붐' 예상 (p. 4-5)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042982Y>)



인도네시아 고객, 핀테크 업체 모카 인수 (p. 6-7)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5040915263160106077>)

인니 노동단체들, 코로나로 '노동절 시위' 집에서 온라인으로

성혜미 기자 송고시간 2020-05-01 11:25

900만명 고용지원 프로그램 신청...한인 봉제공장들도 위기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노동단체들이 1일 노동절을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년처럼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지 못하고 온라인 시위로 전환했다.



2016년 인도네시아 노동절 시위 장면

인도네시아 3대 노동단체가 연합한 '인도네시아 노동자총회'(MPBI)는 이날 가두시위 대신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노동자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절 '집에서 시위'(#demodarirumah) 운동

이들은 '집에서 시위'(#demodarirumah)라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노동 현안인 옴니버스 법안 반대 운동을 온라인에서 벌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법 등 80여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수정하는 옴니버스 법안을 올 초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후하다'는 평가를 받는 퇴직급여 감액안 등이 포함됐기에 노동계가 결사 저지에 나섰다.

자카르타 수도권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이 발령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해당 법안 내 노동 관련 조항 심의를 연기하기로 하원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동단체들도 거리 시위 계획을 취소했다. 노동단체들은 심의 지연이 아니라 노동 관련 개정안 폐기를 요구한다.



올해 1월 인니 노동계의 옴니버스 법안 반대 시위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체 중 3분의 1만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이고, 900만명이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자들도 단계적으로 고용지원 프로그램(Pre-Work Card)에 가입될 것이며 앞으로 4~5주 안에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4개월간 월 60만 루피아(4만8천원)의 수당과 온라인 교육 등 1인당 총 355만 루피아(28만원) 상당 혜택이 지원된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220만명이 해고 또는 무급휴직 상태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해고자가 170만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무부는 코로나 사태로 110만명~378만명이 빈곤에 빠지고, 290만명~52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호복 생산하는 인도네시아의 한인 봉제 업체

코로나 사태로 인도네시아의 한인 봉제공장들도 위기를 맞았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중국산 원·부자재 수입 차질이 문제였고, 이제는 경기·소비 위축으로 주문 물량 자체가 끊겼다.

한인 봉제공장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 협조 아래 한국에서 원단을 가져다 방호복을 만든 뒤 한국 수출과 인도네시아 내수 공급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방호복 원단이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라 원하는 만큼 방호복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인 봉제업계 관계자는 "주문이 없어 재봉틀을 세워두는 공장이 점점 늘고 있다"며 "실제 폐업까지 한 공장은 아직 없지만, 6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코로나 영향 '베이비붐' 예상

입력2020.05.04 11:32 수정2020.05.04 11:32

인니 국가가족계획청 "코로나 기간 가족계획 참여 저조"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억7천만명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가족계획조정청(BKKBN)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가족계획 참여가 저조해 '베이비 붐'(출생률 급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스토 와르도요 BKKBN 청장은 "코로나 사태 발생 후 피임기구 사용이 줄었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면 가족계획 서비스 참가자들도 줄었다"며 "베이비붐에 따른 인구 문제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BKKBN은 자궁 내 피임기구(IUD) 시술이 지난 2월 3만6천여명에서 코로나 사태 발생 후 3월에는 2만3천여명으로 급감했다고 자료를 내놓았다.

같은 기간 이식형 피임제(임플라논) 시술은 8만1천여명에서 5만1천여명으로, 피임용 주사제(depo shot) 사용은 52만4천여명에서 34만1천여명으로, 피임약 복용은 25만1천여명에서 14만6천여명으로, 콘돔 사용은 3만1천여명에서 1만9천여명으로 줄었다.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은 2천200여명에서 1천100여명으로, 난관 절제술을 받은 여성은 1만3천여명에서 8천여명으로 감소했다.

BKKBN은 그동안 농촌 지역 등에서 피임,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마을 의사와 산파를 통한 교육에 공을 들이고 이들로부터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서자바주 시안주루의 한 부부는 지난달 30일 보건소에서 딸을 출산한 뒤 '나라 파티마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이의 아버지 람드한 압리아나(32)는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을 의미한다"며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부모가 아이에게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다.

필리핀 바콜로드시의 한 부부는 4월 13일에 태어난 딸에게 '코비드 마리'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인도에서는 신생아에게 '코로나 쿠마르', '코로나 쿠마리' 등의 이름이 붙었다.

인도네시아 고젝, 핀테크 업체 모카 인수

고영경 박사공개 2020-05-06 10:03:16

바야흐로 저성장의 시대다. 기업들은 다시금 성장의 기회를 얻기 위해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최근 십여 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견인해 온 중국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이머징 시장이 더 이상 아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눈은 그 다음 시장인 프론티어마켓으로 향한다. 아시아 프론티어 마켓의 중심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며 이 시장의 성장과 가능성을 지켜봐 온 필자가 이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고 싶다.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 슈퍼스타 고젝(Gojek)이 최근 모바일 POS 스타트업 모카(Moka)를 1억3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지금까지 고젝이 인수한 회사는 모두 12개이며 금액이 공개된 거래 가운데 이번 모카 인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다.

모카는 POS(point-of-sale) 시스템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이다. 4만 개의 음식점과 커피숍, 소매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카앱을 쓰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통해 매출과 재고 관리, 포인트 사용 및 종업원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인수자인 고젝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인도네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데카콘이다.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라이더(오젝)를 이용자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에서 출발한 고젝은 라이드-헤일링을 기반으로 음식 배달과 마사지, 청소, 가전기기 수리 등 각종 서비스 예약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고-페이(Go-Pay)라는 자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명실상부 인도네시아의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해외의 굵직한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의 수익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고젝도 2019년 12월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한다.

주문량이 많지 않은 고평스(GoFix)와 고글램(GoGlam) 등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직원 해고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반면 핀테크 분야는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 왔는데, 경쟁자인 그랩의 파이낸셜 섹터의 성공이 보여주듯이,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핀테크 시장상황이 수월하지만은 않다.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보유자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떠오르는 시장으로 주목을 받았었지만, 현재 디지털 결제 및 소액대출 부문은 레드오션으로 변모했다.

인도네시아에만 250여 개가 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있고 이들 대부분이 페이먼트와 대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펀이를 앞세워 결제시장을 열어젖힌 고젝이지만 오보(OVO),

다나(Dana) 등 막강한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위태로운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젝은 막대한 펀딩을 바탕으로 라이드-헤일링 해외시장 확대 그리고 핀테크 분야에서는 자국내 경쟁력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젝은 이미 2017년 카르투쿠(Kartuku), 미드트랜스(Midtrans)와 마판(Mapan) 등 세 개의 인도네시아 핀테크 업체를 인수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필리핀 핀테크 업체인 코인스(Coins.ph)를 인수했다.

동남아에서 그랩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금융서비스는 고젝이 한 발 아래 놓인 상황이다. 따라서 고젝이 대규모 자금을 쏟아 모카를 인수한 것은 먼저 가장 큰 시장이자 홈그라운드인 인도네시아 내에서 금융서비스의 다양화로 전선을 확대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